고래문화재단 Whale Cultural Foundation

보도자료

울산중심 행복남구 The Heart of Ulsan, Happy Namgu

고래문화재단, 디지털 힐링 프로그램 ‘고래숨 명상’ 시즌2 운영

- 시즌1의 높은 호응 이어 시즌2도 신청 조기 마감... 다도체험 더해 마음 돌봄 시간 확대 -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남구청장 임현철)은 장생포라이트와 연계한 웰니스 프로그램 ‘고래숨 명상’ 시즌2를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총 6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래숨 명상’은 장생포문화창고의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장생포라이트의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는 야간 문화프로그램이다.

지난 시즌1은 명상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시즌2 운영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즌2 역시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기를 확인했다.

시즌2에서는 기존의 호흡과 신체 이완 중심의 명상 프로그램에 다도체험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 내용을 한층 확장했다. 차를 마시며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참여자들과 소감을 나누는 마음기록 시간을 더해, 단순한 휴식을 넘어 내면을 돌아보고 정서적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장생포라이트 영상과 자연의 소리, 싱잉볼 등을 활용해 오감을 깨우고 몰입감을 높이는 한편, 장생포문화창고만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바다와 야경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웰니스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고래문화재단 관계자는 “시즌1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

입어 시즌2를 준비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수요와 다양한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생포라이트가 일상 속 쉼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야간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사진 붙임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13.